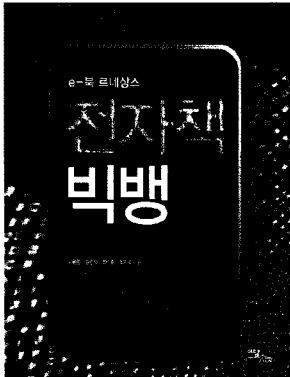


e-북의 시대, 그러나 인쇄출판의 가치는 영원



이용준 · 김원제 · 최학현 · 최재표 공저

이 책의 저자 4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자출판산업 육성 정책연구 TFT의 위원과 부서 담당자로서 몇 달 동안 TFT에 참여하면서 외국에 비해 전자책 시장 반응이 미진한 국내 현실을 직시, 국내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인쇄술

1997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라이프>는 지난 1천년동안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그 첫 번째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성경을 찍어낸 것을 꼽았다. 당시 귀족과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이 그의 인쇄기를 통해 일반인에게 보급되면서 결국 서양문명이 현재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책은 지식을 모아 보존하고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쳐왔다. 책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문자와 종이, 인쇄술이 필수적이지만 책을 통한 지식의 대중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인쇄술이다. 인쇄술은 인류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끝에 발명한 것으로 인류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인류는 책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베끼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책을 베끼는 것은 그 과정에서 틀린 글자나 빠지는 글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단점이 있어 지식과 문화수준이 점차 발달하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활자인쇄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구텐베르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흔들리는 가톨릭을 바로잡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경을 널리 보급할 생각으로 활자인쇄술을 활용했다.

13세기 당시에는 구약성서 창세기로부터 신앙성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십 권에 달하는 성서 한 부를 한 사람이 모두 필사하려면 3년이 넘는 세월동안 공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수도사나 수녀들이 필사한 성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 일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이처럼 성서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위주로 한 대부분의 책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필사하여 보관했다. 이렇다보니 자연히 가톨릭 수도원은 지식의 창고가 되어 지식을 보관 전수하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 이곳에 보관된 서적을 통해 왕실과 귀족, 수도승들만이 지식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성서를 교회와 수도원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일방적인 신앙을 강조하며 유럽 전체에 거대한 종교권력을 행사하였다.

움베르트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 이 소설은 감독 장 자크 아노에 의해 1986년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라있다. 중세 말의 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공 윌리엄 수도사가 수도사들이 연속적으로 살해당하는 음모를 파헤쳐 가는 줄거리다.

수도원 도서관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에 관해 논한 시학 제 2권의 필사본이 숨겨져 있다. 예수가 평생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으며, 웃음은 악마의 유혹이고 신성모독이라 믿는 수도원장이 그 책에 독을 발라놓아 책을 보는 사람은 모두 독살당하게 된다.

책의 제목은 중세의 시 구절에서 “태초의 장미는 이름으로 존재하나 우리는 빈이름만을 가지고 있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장미는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허망함만 남은 것, 과거의 아름다움을 잃고 이제는 이름만 남아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실체는 모두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다. 과거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들은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직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책을 많이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책은 수도사만이 볼 수 있었기에 그 자체가 예수와 대화하는 권위의 상징이었기에 그 권한을 가진 수도사는 권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 종이인쇄 기반 지식과 정보, 역사발전의 초석

그러나 2백년이 지난 1455년, 구텐베르크는 자신이 발명한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3년 남짓한 기간에 성서 180부를 찍어냈다. 중세까지 문자를 읽고 쓰며 책을 소지하는 이들은 귀족과 수도승같은 소수 권력층이었으며, 지식에서 소외된 대중들은 하층민의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인쇄술은 유럽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구텐베르크 성경 발간 이후 40년 만에 유럽 110개 도시에 인쇄사가 설치됐고, 그 뒤 10년 만에 활자인쇄술로 발간된 서적수가 800만권에 도달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지식정보혁명을 가져온 인쇄술은 보통사람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적을 구입하고 아담한 서가를 꾸밀 수 있게 해 줬다. 민족단위의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대중화된 서적의 보급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법전의 대량보급 역시 국가통치체제 구축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인쇄술은 당시 시작되고 있던 르네상스의 불길게 더욱 거세게 했다. 이때 인쇄된 그리스 로마시대의 고전들은 종교압박기인 중세 이전의 자유롭던 고전시대를 꿈꾸게 해 주었던 것이다. 이제 책은 소수의 지배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소외되었던 대중을 위한 것이 되었다. 학문상의 활발한 토론도 활자인쇄술의 도움으로 싹이 트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금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으며 나아가 역사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인쇄술의 발달없이는 종교개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은 활판 인쇄술에 힘입어 불과 2주만에 전 유럽으로 파급되었다. 루터는 인쇄술을 가리켜, 복음 전파를 위해 신이 내리신 최대의 선물이라고까지 극찬했다.

당시 인쇄술의 발달은 루터의 사상을 빠르게 지식인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판화를 통해서 글을 모르는 농민들에게도 이해

시킬 수 있었다.

구텐베르크 성서 등 라틴어 성서의 인쇄에 이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를 비롯해서 각국의 언어로 성서가 금속활자로 인쇄, 출판되어 대중에게 보급됨으로써 대중은 지금까지 가톨릭교회가 이야기한 것들이 성경과 동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종교개혁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출판물들이 생산되었고 종교개혁과 이에 반발한 가톨릭 교회의 반종교 개혁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들 인쇄물은 정신적 정치적 투쟁의 도구, 선전 선동과 교화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인쇄술에 의해 지식과 정보가 대량 복제되면서 대중의 힘은 점점 커졌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쏟아져 나온 책과 여러 인쇄물을 접하며 이제 대중들은 지식이라는 권력을 지배층과 공유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시민혁명을 거쳐 근 현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다.

● 성장을 정체에 놓여있는 출판산업

20세기 초 중반까지 출판산업은 무한한 성장력이 확실히 보장되는 영역이었다.

대중교육의 보급으로 책의 소비가 늘어났고 여가시간이 늘어나 책 읽을 시간도 많아졌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등장을 시작으로 수많은 영상매체가 쏟아지고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선정적인 자극적인 시청각 매체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적이고 집중력이 필요하며 다소 재미가 떨어지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매년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국민 독서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시간은 평일 28분, 주말 29분에 불과하며, 이것은 TV이용시간이 인터넷 이용시간의 1/2 내지 1/4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출판 산업의 매출액은 10년 가까이 3조 5천억 원 내외에 묶여 있으며, 전통적인 출판강국이었던 이웃나라 일본은 갈수록 출판산업의 매출액이 떨어져 1990년대 초반의 규모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기타 선진국들도 출판산업의 성장률은 영상산업의 성장률이나 게임산업의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